



코로나 19의 여파로 공연을 취소·연기한 서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시무용단 공연 모습.

온라인 공연으로 문화적 거리 좁힌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공연장이 문을 닫은 가운데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국민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온라인 공연을 마련했다. 특히 국내 대표 클래식 행사 중 하나인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 역시 행사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향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오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유튜브로 '내 손안의 콘서트'를 생중계한다. 약 40분의 프로그램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1주일에 한번씩 진행된다. 음악평론가 송현민이 사회자로 나서며 예술감독 정지용도 패널로 참여한다.

히피스트 윤혜순, 첼리스트 홍서현 단원이 오는 20일 1회차 공연을 준비했다. 베토벤의 '이히 리베 디히(그대를 사랑해)', 마스네 '타이슨 명상곡', 비발디 '사계' 중 '겨울 1악장'을 연주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원과 더블베이스 트리스 손지호 등이 바체비치의 '바이올린 현악 4중주', 파헬렐 '개논'을 선보인다. 3회차 공연(4월 10일)에는 최문규(트럼펫), 박성현(트롬본) 등이 무대에 오르며 4회차 공연은 신은진(바이올린), 김나영(비올라), 최지영(첼로) 등이 꾸민다. 5인 이합이 참가하는 실내악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번 공연은 현재 4회차까지 예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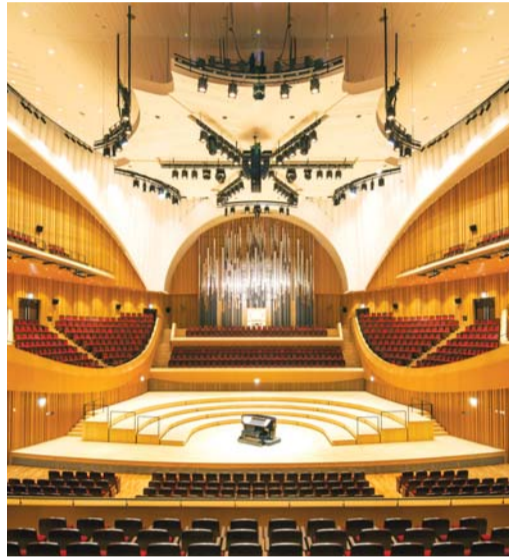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지난 13일 진행된 '힘내라 대한민국' 연주회 실황은 서울시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부지휘자 윌슨 응의 지휘로 베토벤의 '영

코리안심포니 매주 금 유튜브 생중계 세종문화회관·롯데콘서트홀 등도 기획 '교향악 축제' 온라인 연주회 검토중

웅'을 연주, 국민들을 위로했다.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시작한 교향악축제는 국내 클래식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다. 서울시향을 비롯한 전국의 대표 교향악단과 정상급 협연자들이 함께 무대에 서는 공연은 특히 매일 KBS 클래식 FM으로 생중계돼 지방에서도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 전국의 18개 교향악단이 무대에 설 계획이었지만 개막 공연을 맡은 세종솔로이스츠를 비롯해 대구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등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광주시향의 경우 현재 상임지휘자가 공식인 관계로 애초부터 교향악 축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었다. 전당측은 일부 프로그램을 온라인 중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주 내로 자세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연을 취소 또는 연기한 세종문화회관도 무관객 온라인 중계 공연을 기획해 선보인다. 오는 31일 서울시오페라단의 '오페라 특목 로시니-세비야의 미술사'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4월까지 무관객 온라인 중계 공



롯데콘서트홀

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온라인 중계 공연은 네이버 TV나 세종문화회관 유튜브를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무용단 닷 NOT'은 오는 4월 18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취소된 단체·예술가 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단체의 공연 10여개는 4월중 무관객 온라인 중계로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중계 공연 외에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 등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랐던 클래식, 음악극 등 공연 6편도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서울문화재단은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기획공연 '운당여관 음악회'를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하고,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주요무형문화재인 박귀희 명창이 돈화문로에서 운영했던 한옥 여관 '운당여관'에서 작은 공연으로, 올해는 입과손스튜디오, 음악그룹 나무 등 젊은 국악팀이 신선한 매력을 발산한다.

최첨단 공연장의 시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롯데문화재단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롯데콘서트홀을 찾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스테이지 투어를 영상으로 촬영, 이달 중 롯데콘서트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다.

스테이지 투어는 롯데콘서트홀 무대의 특징과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콘서트홀이 지닌 건축과 음향적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0여분간 진행되며 무대, 악기 보관실, 연주자 대기실, 파이프 오르간 연주대 등 콘서트홀의 숨은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 체험이다.

피아노 보관실에서는 2억원의 스타인웨이 피아노 4대와 파이프 오르간 콘솔도 둘러볼 수 있다. 무대감독들이 무대와 객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SM데스크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이남 작가 해외전시 차질

스페인·룩셈부르크 연기...북경 취소

코로나 19 확산이 세계 문화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영국 테이트모던 등에서 전시를 열었던 이이남 작가의 올해 해외 전시 일정이 일부 연기 및 취소됐다.

한국과 스페인 수교 70주년을 맞아 스페인 마드리드 한국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이남 작가의 개인전은 당초 3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올 하반기로 연기됐다.

또 역시 3월 열릴 예정이었던 룩셈부르크 ArtKoco 갤러리 개인전이 올해 중반기로 연기됐으며 북경 화이트박스, 홍콩 센트럴 아트페어 등은 아쉽게도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 작가는 올해 카타흐스탄, 홍콩, 로마 등에서도 해외 전시가 예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오는 5월 서울 사비나 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화랑협회, 코로나19 피해 돕기

자선경매 6억3000여만원 기부



이인성작 '봄경'

한국화랑협회는 서울옥션과 공동 주관한 코로나 19 피해 돕기 온라인 자선경매에서 6억3000여 만원이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자선경매에는 협회 회원화랑과 컬렉터 소장품, 작가 후원 작품 등 73점이 출품돼 모두 낙찰됐다. 김장열 작가를 비롯해 한기미술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이 기부에 참여했다.

대구 출신 작가 이인성의 수채화 '봄경'(40.7×52.7cm)이 6410만원으로 최고가 낙찰됐으며 경매 전 프리뷰 기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끈 작품은 원로화가 김장열이 내놓은 '물방울'(60.5×73cm)은 129번이나 경합 끝에 451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아갔다. 또 사석원이 내놓은 유화 '꽃과 당나귀'는 137회의 경합을 벌였고 6010만원에 팔렸다.

이밖에 최병소, 이강소, 이배, 이원희, 도성욱 등 많은 작가 작품들이 나왔다.

한국화랑협회와 서울옥션은 낙찰총액에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대구시정에 전달할 예정이며, 성금은 대구 지역 코로나 피해 돕기에 사용된다. /연합뉴스

새로운 인물들의 다양한 표정 정현주 개인전 30일까지 고흥 도화헌미술관

거친 표현주의 화풍으로 인물 초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정현주 작가 개인전이 고흥 도화헌미술관(관장 박성환)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Stand mute'를 주제로 다채로운 회화 작품 25점을 선보이고 있다.

정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특징 인이라기 보다는 작가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

성한 사람들이다. 여행을 다니거나, 생활 속에서, 또는 모델 등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정 작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 속에서 재구성해 다양한 느낌의 인물화를 완성해낸다.

그의 작품은 푸른색과 붉은색의 강렬한 대비가 돋보이며 특히 정면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눈'을

통해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정 작가는 계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개인전 9회 및 영 아톰 타이베이, 이스탄불 코리아 아트쇼(서울시립미술관) 마이애미, 싱가포르, 홍콩 아트페어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tand mute'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 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